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 발굴한다

전북대, 대학 최대 규모 문학상 수상작 선정... 고등·대학 부문서 296여명·총 798편 경합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중(鐘)'을 쓴 김혜린(송실대·문창·4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시계 모양을 한 골목'을 선보인 장수민(안양예고·문창·2년) 양이 선정됐다.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배터리가 약한 차의 시동을 거는 방법'을 쓴 홍성욱(명지대·문창·1년) 씨가, 고등 부문에는 '오르골'을 쓴 석예원(인양예고·문창·2년) 양이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 대학부 당선작 '중(鐘)'은 보편적 세계를 특수한 경험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면서도 시대적 감각과 간절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시적 의지를 놓치지 않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시계 모양을 한 골목'은 서울 종로의 한 골목을 배경으로 시계 수리공의 삶을 절묘하게 포착해 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소설 대학부 당선작 '배터리가 약한 차의 시동을 거는 방법'은 문장과 구성면에서 단연 돋보였으며 작가의 의도를 밀고나가는 힘은 기성작가 못지않아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고등부 당선작 '오르골'은 컨베이어 벨트와 오르골을 병치해 이야기를 끌고 간 점에서 스토리텔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학 문학 공모전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문학상 단계에 올랐던 이번 문학상 수상작은 800만 원 규모의 문학상 상금에 더해 시 부문에는 170명 667편이, 소설 부문에는 126명 131편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시 부문 심사는 전정규, 이병호, 김경배, 문신 위원이, 소설 부문 심사는 김병용, 이광재, 송준호, 김소운 위원이 맡았다. 전북대는 지난해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메세나 지원 활용의 일환으로 상금을 인상, 이번 문학상 역시 총상금 800만원 규모로 운영됐다.

최육재 문학상 운영위원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은 "전년보다 많은 작품들이 응모됐으며 사회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려는 모습이 보였다"고 평했다.

김재민 부총장은 "본 문학상은 그간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들을 발굴해 내며 전북대의 자람이 되고 있다"며 "전북대만의 문화적 자산인 '가람이병기 선생'과 '최명희 작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많은 문재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는 1955년 전북대신문 창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와 논문을 공모했던 '학생작품 현상모집'이 모태가 됐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1955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상 수상작을 정리, 총 5권의 전북대학교신문방송사 문학상 당선작 전집을 지난해 발간했다.

한편,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11월 8일 열렸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미술관기획초대전 '예술의 향유'

20일까지 군산예깊미술관에서 군산대 예술대학 교수 초대전

군산대학교 미술관은 13일부터 20일까지 군산예깊미술관에서 '2018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기획초대전'인 '예술의 향유'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군산대학교 예술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작품을 한 데 모아 기획된 전시회로 고석인, 김병욱, 김운수, 김정숙, 박경우, 이명순, 조순길, 강유림, 금정희, 기원진, 김경희, 김남수, 김명숙, 김중수, 김철규, 김혜경, 박정희, 배수정, 서원, 이상현, 이연숙, 장용선, 정강희, 조현동, 전영록, 허은오 교수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정숙 미술관장은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초대전을 열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예술작품의 미적 세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수행과 열정,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출품된 작품들에서 그러한 향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군산대학교 미술관은 지역사회 문화풍



토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매도시와 사랑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소통

김제&동해시립합창단 교류음악회 1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열려

김제시립합창단(단장 전대식 부시장)은 오는 17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7회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김제시립합창단&동해시립 합창단 교류음악회' 공연을 펼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자매도시인 동해시 시립합창단과 김비름과 사랑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로 평소 우리 귀에 익은 명곡, 그리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음악들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연주회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으로는 김제시립합창단의 혼성합창곡 영화 OST 매달리 10개곡으로 유쾌하고 감동적인 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동해시립합창단의 꽃 피는 날, 고래 떼의 합창, 명태 등 주옥같은 명곡으로 사랑이 가득 한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제시립합창단은 2002년 창단하여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김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 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공연을 통해 김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임태경과 박기영이 함께하는 코리안필팍스오케스트라 LOVE 콘서트

24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우수작 초청공연

정읍시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4일에 2018년 11월의 늦가을을 맞아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자 우수작 초청공연행사로 임태경과 박기영이 함께하는 코리안필팍스오케스트라 LOVE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김동문 지휘자가 이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안필팍스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대표 크로스오버 테너 임태경, 천상의 목소리라 호평을 받는 가수 박기영이 함께한다.

2002년 창단하여 최고의 실력을 갖춘 코리안 필팍스오케스트라는 드라마 음악, 뮤지컬 음악, 영화음악 등에서 사용된 유명한 곡을 편

곡하여 뛰어난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원곡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TV 프로그램인 복명가왕 등에서 최고의 가창력을 뽐낸 가수 박기영의 '넬라판타지아'와 크로스 오버 테너이면서 뮤지컬을 대표하는 임태경이 '지금 이 순간'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과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격조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은 가을 날 깊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 관람료는 2층 1만5,000원, 3층 1만원(장애인·국가유공자 50%, 청소년 30% 할인)이며,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23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가 가능하다. /정은=김태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